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교회 활성화 방안*

조용훈 (한남대학교, 교수)

I. 서론

II. 마을만들기란 무엇인가?

III. 부천 새롬교회의 마을만들기 운동

1. 개요
2. 새롬교회의 마을만들기운동

IV.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회의 과제

1. 지역사회와 교회에 대한 목회철학
2. 마을공동체 신학
3. 연대와 협력, 그리고 네트워킹
4. 마을만들기의 구체적 실천 전략

V. 결론

* 이 논문은 2012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ABSTRACT •

The Tasks of the Local Churches for the Movement of Community Building

Jo, Yong-Hun

The Tasks of the Local Churches for the Movement of Community Building

The collapse of the traditional village community have caused many kinds of mental, social and ministerial problems. To face these problems the movement of the making village (community building) is regarded as the good alternative.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the local churches should respond to this issues of the movement of the making village on the basis of case study of the Saerom Church in Gyunggi province.

For the motivating and developing of the making village by the local churches, it is important to have a solid theological foundation and solve the practical problems. In this paper, we will presen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tasks of the local churches in four ways. Firstly, the minister of the local church have the ministerial theology as the mistry for the local community not only for the church itself and as the minister for the local residents not only for the church members. Secondly, we should theorize the theology of community including the local community. Third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networking includi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non-profit organization and churches in the local community. Lastly, we need to developing the strategy such as vision for the village, seeking the resources, building up the workers, seeking the communal work, making close relationships, training the root democracy and distributing the outcome fairly.

Key words: making village (community building), community, local church, networking, theology for the community, Saerom church

I. 서론

과거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는 전통적 촌락공동체를 중심으로 두레와 향약, 그리고 계와 같은 공동체적 문화가 오래동안 존재했다. 하지만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통치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남북분단과 이데올로기 갈등, 이어서 군사정부의 개발독재로 인해서 전통적 공동체문화는 해체되어 갔다.¹⁾ 특히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촌락공동체의 붕괴와 더불어 공동체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만큼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주거문화인 아파트만 보더라도 공간적인 밀접성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반공동체적임을 알 수 있다.²⁾ 잦은 이사로 생겨나는 도시인의 정주 불안정성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³⁾

지역공동체의 위기는 지역사회만 아니라 그곳에 터 잡고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데, 이는 인간이란 본래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목회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역교회 구성원 대부분이 지역민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지역공동체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지역교회의 위기를 불러온다. 지역민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이주해 들어올 때라야 지역교회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마을이 살기좋은 마을로 변화되지 않고서

1) 윤형근, 「새로운 지역문화 운동」, 정문길 외, 『삶의 정치: 통치에서 자치로』(서울:대화출판사, 1998), 223-225.

2) 박철수,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아파트단지 공화국」, 이종수 편, 『한국사회와 공동체』(서울:다산출판사, 2008), 185-226. 박철수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주거문화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소설 속에 나타난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의 개인주의, 현세주의, 반공동체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해 이사율이 자그만치 20%에 달하는데, 이는 유럽의 2%, 일본의 5-7%, 대만 7%, 미국 12%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이종수, 「공동체와 마을만들기」, 이종수 편, 『한국사회와 공동체』(서울:다산출판사, 2008), 3.

는 목회도 선교도 그 효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좀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려고 하는 마을공동체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공동체의 붕괴로 말미암아 생겨난 소외와 소속감 상실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시대의 교육, 복지, 문화의 과제는 결국 지역통합 혹은 지역연계형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⁴⁾ 한편, 지역공동체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⁵⁾의 하나로서 지역사회나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는 지역민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험장으로서도 중요하다.

마을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산업화나 도시화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아힘사(비폭력) 정신에 기초하여 모든 활동이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협력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간디는 이러한 ‘마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활운동이 농촌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한다.⁶⁾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마

4) 이원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서울:동연 2011), 178.

5) 이 개념의 대중화에 공헌한 로버트 푸트남(R. Putnam)은 사회자본을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이 조정된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특징들”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김경동은 사회자본의 존재양식으로 정보공유, 신뢰, 사회질서,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관계성을 언급한다. 어찌되었건 사회자본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개인을 공동이익과 공동선을 지향하는 시민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발전은 빨라진다고 볼 수 있다. 광현근, 「현대 지역공동체의 의의와 형성전략」, 이종수 편, 『한국사회와 공동체』, 132, 각주 3; 김경동, 『기독교 공동체 운동의 사회학』(서울:한들출판사, 2010), 132-133.

6) 마하트마 간디, 김태언 역,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서울:녹색평원사, 2006), 57.

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나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역공동체 운동에 관심이 많은데 서울시의 경우 이 사업에 많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라는 주제의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회적 관심은 적은 편이었다. 학문적으로 보더라도 신학적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⁷⁾ 거기에는 지역사회에 무관심한 한국교회의 신학과 교회중심의 목회관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 결과 양적으로 성장했는지는 몰라도 지역에서는 외딴섬과 같이 고립되고 말았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사회적 비판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지역공동체 형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교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마을만들기운동을 통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마을만들기에 관심했던 우리나라 지역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알려진 부친의 새롬교회(담임 이원돈 목사)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마을만들기의 신학과 실천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II. 마을만들기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마을’ 혹은 ‘동네’란 지역공동체의 최소 공간적 단위로서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물리적·상징적 경계를 가진 지리적 장소이며 사회적으로는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⁸⁾ 오늘날 도시의

7) 정재영·조성돈,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성석환, 『지역공동체를 세우는 문화선교』(서울:두란노아카데미, 2011).

8) 곽현근, 「현대 지역공동체의 의의와 형성전략」, 이종수 편, 『한국사회와 공동체』, 136.

아파트 주거문화에서 보듯 물리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것만으로 마을공동체라 할 수는 없다. 마을은 거주자들이 물리적으로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가까워야 한다. 말하자면, 마을이란 공동의 의식과 생활양식을 통해 결속감이 증대된 사회집단으로서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도덕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공동체란 마을구성원이 공동의 목적과 이념, 가치를 추구하는 의도적 공동체다.⁹⁾ 마을만들기란 물리적 공간으로서 마을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생활운동으로서, 지역사회 형성(community building), 동네재생(neighborhood regeneration) 혹은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로 불리기도 한다. 관주도인 대부분의 도시계획이나 재개발사업과 달리 마을만들기는 지역민이 중심이 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운동이다.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마을만들기는 일본의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의 영향 받음이 크다.¹⁰⁾ 마치즈쿠리는 1962년 나고야시 에이트 지구 도시재개발 시민운동에서 처음 태동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마을부수기’에 맞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나 필요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려는 자발적인 주민운동이었다. 이후 마치즈쿠리는 각 지역의 독특한 분위기나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가치나 이야기를 살려나가는 지역자치운동으로 발전했다. 그 가운데서도 규슈 오이타현의 유후잉(湯布院)마을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유후잉 마을은 온천 이미지의 차별화, 자연이미지의 활용, 문화의 자원화, 그리고 특색있

9) 정재영·조성돈,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25, 31.

10) 다무라 아키라, 장준호 역, 『마을만들기 실천』(서울:형설출판사, 2008); 아마모토 마사유키, 충남발전연구원 역,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마을만들기』(한울아카데미, 2006); 와타나베 순이치, 이건호 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대전:목원대학교출판부, 2004); 엔도 야스히로, 김찬호 역,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마을 만들기』(서울:황금가지, 1997)

는 건축물을 통해 스토리가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했다.¹¹⁾ 그 외에도 사이타마현 카와고에시의 ‘역사마을만들기’, 후쿠오카현 호시노무라시의 ‘별과문화의 마을만들기’, 에이메현 마츠야마시의 소설에서 착안한 ‘21세기형 마을만들기’, 사쿠노우에노쿠모의 ‘이야기가 있는 거리중심의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형태의 마치즈쿠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을 마을만들기 운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타율적인 운동인데다 경제적 가치만 강조했다는 점에서 요즘 논의되는 마을만들기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마을 지붕만 바뀌었다’는 비난이 있을 정도로 새마을운동은 마을의 외형 변화에 머물렀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주거공동체, 환경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그리고 자치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대상으로 삼는다.¹²⁾ 최근 우리나라에도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마을만들기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¹³⁾

11) 이명규, 「일본에서의 마을만들기 운동과 대표사례」, 이종수 편, 『한국사회와 공동체』, 267-294.

12) 김경동, 『기독교 공동체 운동의 사회학』, 159-160.

13)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마을만들기 운동이 포함된다. 강원도 화천의 토고미 마을, 충북 단양의 한드미 마을, 대구 삼덕동 담허물기, 부산 해운대구의 희망세상 반송동, 경북 군위의 한밤마을, 홍성군 문당리 마을, 경남 산청의 안솔기 마을, 서울 마포 성미산 마을 등. 윤태근, 『성미산 마을 사람들: 우리가 꿈꾸는 마을,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을』(파주: 북노마드, 2011); 김은희·김경민, 『그들이 허문 것은 담장 뿐이었을까: 대구 삼덕동 마을 만들기』(서울: 한울, 2010); 이회영·한지윤, 『공동체를 찾아서』(서울: 생각을 담은집, 2011); 박원순,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서울:검등소, 2009).

III. 부천 새롬교회의 마을만들기 운동¹⁴⁾

1. 개요

새롬교회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은 ‘부천의 갈릴리’라 표현될 정도로 부천의 대표적인 서민 거주지였다. 가내수공업 공장들이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에는 다세대주택이 늘어서 있다. 주민들 대부분은 공장노동자나 일용공이었으며 주민들의 주거형태는 단칸방 전월세가 다수였다.

새롬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원돈 목사는 1986년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을과 지역, 그리고 교회야말로 가장 좋은 배움터라는 신념으로 처음부터 지역선교와 문화선교를 핵심으로 삼는 목회에 관심하였다. 마을이 살아야 교회도 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새롬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약대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공부방운동과 작은도서관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마을 인문학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새롬교회의 마을만들기 운동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¹⁵⁾ 첫째 단계는 지역과 아동의 시대(1986-1997)로서 빈곤지역의 대표적 취약자인 어린이의 복지를 위해 공부방(지역아동센터)과 작은도서관운동을 진행하던 시기다. 둘째 단계는 가정과 마을의 시대(1997-2000)로서 IMF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생겨난 가정해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가정사역을 진행하던 시기다. 새롬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무료급식소 및 청소년 쉼터, 나중에는 지역 내 빈곤 노인들을 위해 ‘은빛도시락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단계는 생명과 지구촌의 시대

14) 이원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서울: 동연 2011), 공식홈페이지: www.isaerom.com

15) 이원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174.

(2000-)로서 환경위기와 다문화사회를 맞아 마을만들기 운동이 마을 단위를 넘어 지구촌으로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있는 시기다. 생태의식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에 야생화 정원인 ‘쌈지공원’을 만들고, ‘약대 푸른마을 생태 요리축제’를 열기도 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문화학교인 ‘꿈빛날개’도 운영하고 있다.

2. 새롭교회의 마을만들기운동

1) 공부방운동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새롭교회는 개척 당시인 1986년에 이미 무주택자나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해 취학 전 아동탁아소인 ‘새롭 어린이집’을 열었다. 방치된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탁아소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1990년에 공부방인 ‘새롭 만남의집’을 열게 되었는데, 이후 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로 발전하게 된다. ‘새롭 만남의집’은 부천 지역 최초로 설립된 지역아동센터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새롭교회가 어린이들에게 관심했던 이유는 어린이야말로 경제위기로 말미암는 실업대란과 가정파탄의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 후 학생들을 보호하고, 급식을 제공하며, 모자란 기초학습을 돕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연극, 영화, 바이올린, 요리, 수영, 체험학습 등)을 운영한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가정, 빈곤가정, 그리고 결손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복지, 문화, 학습, 급식을 연결하는 ‘종합복지센터’로서 기능하고 있다.¹⁶⁾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3천여 개의 지역아동센터는 급식과 돌봄을 통한

16) 이원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120.

중요한 복지사역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에게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보완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사역이라 하겠다.¹⁷⁾ 사회문화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지역아동센터가 주중에는 열린교육과 공동체교육을 수행하면서도 주일에는 기독교교육을 위한 주일학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교회에 매력적인 마을만들기 운동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 운동에서 지역도서관운동으로

새롬교회의 작은도서관 운동은 1989년 2월 윤석희, 정성희 씨가 지역의 시민의식 개발과 기독교문화 확산을 위해 사재를 털어 ‘갑돌이글방’을 세움으로써 시작되었다. 같은 해 9월 갑돌이글방은 장소를 이전하면서 ‘약대글방’으로 이름을 바꾼다. 5천 여 권의 장서를 갖춘 ‘약대글방’은 2002년에 ‘약대 신나는 가족도서관’로 발전하게 된다.

이곳 가족도서관에서는 매년 한 차례씩 글나눔 잔치를 열고 마을음악회를 주최함으로써 점차 마을문화의 구심점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대출해주거나 책을 읽는 곳에 머물지 않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부모와 자녀들의 만남,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는 자원봉사의 기회가 제공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발전해 하고 있다. ‘약대 신나는 가족도서관’은 혈연적 가정을 넘어선 사회적 가정, 지역적 가정, 그리고 공동체적 가정을 추구한다. 가족도서관을 통해 지역전체가 이야기 공동체로 형성되는 일에 궁극적 목표를 둔다.

약대글방이 세워질 당시만 해도 부천시 전체에 공공도서관이 2개뿐이었으며 그나마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약대글

17) 조용훈, 「기독교 도시빈민공동체운동의 현황과 미래적 과제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 157집(2012/여름), 133-135.

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그에 힘입어서 사립도서관운동을 위한 조례 제정 청원운동을 벌인 결과 1996년에 부천시에 사립도서관진흥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졌다. 2000년에는 부천시의 민관네트워크인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가 설립되고 활동의 핵심의제 가운데 하나로 동네마다 하나씩 도서관 만들기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2005년에 인근 지역의 네 개의 시립도서관과 열 한 개의 작은도서관을 네트워킹하여 ‘책 읽는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된다.

3) 약대동 마을만들기 운동

2001년 들어 새롭교회는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도서관운동과 같은 그간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약대동 마을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마을이 환경·교육·문화·복지 친화적인 마을로 바뀌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천시에서도 ‘푸른부천21 운동본부’에서 새롭교회가 제안한 ‘약대동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롭교회 마을만들기의 기본 정신은 첫째,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합의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둘째, 교육·환경·복지 친화적인 마을정신 확산, 셋째, 민·관·자생적 주민단체의 협력관계였다.¹⁸⁾ 이같은 기본 정신에 기초하여 새롭교회는 마을에 대한 이해와 마을만들기에 대한 교육을 마을만들기 운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첫 번째 사업으로 새롭공부방이 모태가 된 ‘어린이 마을학교’(2001년 5월)를 개강하여 지역의 아이들에게 마을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이 마을학교에서는 학교, 우체국, 약국, 놀이터, 피출소, 동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마을의 주요시설을 살피고, 동네 주변의 풀과 꽃 등 마을의 주요 생태계를 관찰하며, 마지막으로는 자기들이

18) 이원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90.

살고 있는 약대지역 마을지도 그리기라는 내용의 커리큘럼을 진행했다.

마을학교가 종강하자 그 다음 단계로 새롬공부방과 새롬어린이집 자모회(20여명)를 대상으로 ‘주부 마을학교’(2001년 6월)를 열었다. 이 모임에서는 마을만들기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사례소개와 더불어 ‘약대동 마을만들기’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토론했다. 약대동 마을만들기의 구체적 아이템으로서 이듬해에 건립 예정이었던 주민자치센터를 어떤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좋을지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 결실로 지역 최초로 주민자치센터 내에 마을도서관을 만들기로 하고, 지역주민센터와 함께 생태테마공원 조성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롬교회 마을만들기 운동의 핵심에는 어린이 복지와 교육이 있다. 새롬교회가 이처럼 어린이에 관심하는 이유는 아이 키우기야말로 개인과 국가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며, 아이를 잘 기르려면 마을 전체가 배움터가 되는 건강한 마을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같은 신념은 ‘아이들이 신나면 마을이 꿈을 꾸고,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는 구호에도 잘 나타난다. 특히, 새롬어린이집과 공부방을 주축으로 새롬이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뜻을 지닌 ‘새힘나 프로젝트’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를 구체화하는 운동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¹⁹⁾ 첫째, 어린이 자치 시민공동체 경험을 위해 어린이 의회 구성하기. 둘째, 어린이들의 문화축제로서 어린이영화제, 어린이 율동, 어린이 스포츠, 요리 프로그램 운영. 셋째, 어린이들의 마을 경험을 나누는 어린이 소동아리 활동을 통해 보다 큰 단위인 부천시 전체의 어린이나 시민단체와 네트워킹하기. 마을만들기 운동 프로그램으로 ‘약대 신나는 가족도서관’에서는 주민 자치센터 앞 잔디마당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작은음악회(도서관의 음악향기)를 개최하기도

19) 이원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168-169.

했다. 그리고 마을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골목벽화를 그리고, 약대동의 마을지도를 만들며, 동네에 꽃밭과 꽃길을 만들기도 했다.

새롬교회는 2010년부터 마을을 평생학습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요 인문학카페'를 개설했다. 월1회, 수요일에 모여서 시민과 지역사회 인사들을 초청하여 토론회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²⁰⁾ 새롬교회 수요 인문학카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부천시 남동의 자활센터, 삼산동, 만수동, 계산동의 '마을 인문학'을 여는 동기가 되었다. 새롬교회가 관심하는 평생학습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교양시민의 양성, 즉 마을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사회윤리가 몸에 밴 시민의 양성에 있다. 말하자면, 공익과 공공선에 대한 헌신의 의지를 갖춘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갈등과 쟁점을 시민정신과 역사적 책임감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가리킨다.²¹⁾

최근 다문화사회 현실을 맞아 약대동 마을만들기 운동은 다문화마을만들기로 발전해 가고 있다.²²⁾ 새롬교회는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2006년에 '지구촌 다문화축제'를 열었는데 그 목적은 교회와 마을의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지구촌축제를 열어 어린이들에게 세계시민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있었다. 참가자들로 하여금 외국문화를 체험케 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구공동체 의식을 함양케 하고자 함이었다. 당시 '지구촌 다문화축제'에는 초등학교생 100여명과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였으며, 중국, 필리핀, 미얀마

20) 주요 커리큘럼은 다음과 내용으로 구성된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교실에서 사회적 협동으로), 괴물과 난쟁이의 나라에서 마당으로 나온 암탉,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의 발견, 지역사회 복지학(마을과 지역사회),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길을 내는 자-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로의 여행(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사회 네트워크), 다시 마을로 돌아온 소통과 돌봄의 이야기(다시 마을로! 마을이 희망이다). 이원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203-204.

21) 이원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205.

22) 이원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207-215.

등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중국 만두 ‘딤섬’만들기, 필리핀 전통춤 배우기, 미얀마 전래 공놀이 체험)이 마련되었다.

현재 새롬교회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약 대동에는 약 2000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고 있는데, 새로 유입된 중산층 아파트 주민과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 사이의 화합 문제가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대동 마을만들기는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 운동을 통해 마을의 복지와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앞으로는 계층간 화합을 위한 문화적 공동체 형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IV.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회의 과제

1. 지역사회와 교회에 대한 목회철학

오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불신이다. 우리사회에 한국교회는 자기성장과 자기만족만 추구하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교회의 마을만들기 사역이야말로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비록 작은 교회라도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지역교회가 마을만들기 운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을과 교회, 그리고 선교의 상관성에 대해 담임목사가 분명한 목회철학을 지녀야 한다. 새롬교회의 경우 담임목사인 이원돈 목사는 한국교회 위기 원인을 개교회주의와 성장주의로 진단하면서, 문

제 해결책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제안한다. 교회가 주축이 된 마을만들기란 신앙적 가치를 토대로 지역의 교육, 복지, 문화를 통합하는 생명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다. 이럴 때 목회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된다. 교인들만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지역목회이며, 교회에 갇힌 목사가 아니라 지역과 마을을 섬기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요청된다.²³⁾

둘째, 지역교회의 마을만들기가 성공하려면 지역사회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을만들기 운동의 성패는 지역주민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는 다시 지역주민을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에 좌우된다. 주민들을 동원하려면 지역주민의 현실적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필요와 현안을 교회공동체의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 새롭교회의 사례에서 보듯,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사역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었다. 맨 처음 새롭교회는 저소득빈곤계층 어린이 사역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동에 집중했다. 그러다가 1997년말 IMF 경제체제 아래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나면서 가정해체 문제가 심각해지자 가정회복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약대 신나는 가족도서관’을 주축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독거노인들을 위한 ‘은빛도시락배달 서비스’(주 2회)나 한글교실인 ‘은빛교실’과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 한편,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현실을 맞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다문화학교인 ‘꿈빛날개’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학적 이슈들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지역교회의 마을만들기 사역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봉사의 자세다. 지역교회가 마을만들기에 관심하는 이유는 섬김을

23) “이원돈의 ‘생명망 목회를 꿈꾼다’” <예장뉴스> www.pck-goodnews.com

위한 것이지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의 독선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나 일방적인 시혜적 태도는 지역민의 반발만 불러올 것이다. 지역교회의 마을만들기는 교회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섬김으로써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마을공동체 신학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 촌락공동체의 해체와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은 공동체문화를 붕괴시켰다. 경쟁을 삶의 원리로 삼고 개인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 공동체문화 형성은 점점 더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공동체적 존재여서 공동체문화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어렵다.

본래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존재방식은 공동체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교제와 사귄 속에 존재하신다. 죄란 공동체 관계들을 파괴하는 일이며, 구원이란 공동체 관계의 회복으로 이해된다.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친구를 치유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네 친구 이야기는 우리시대 화두가 된 ‘치유’(힐링)에 있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막 2:1-12; 마9:1-8; 눅 5:17-26)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의 뜻 역시 인간 삶의 공동체적 특징을 가리킨다. 장애인 공동체 ‘라르슈’의 설립자인 장 바니에(Jean Vanier)의 표현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서로 서로 사랑하는 세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 인류를 부르고 계십니다.”²⁴⁾

한국교회는 유교의 가족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가정같은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유달리 강조하지만 그 범위가 교회 안 구성원들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유교문화의 혈연주의 공동체가 그러하듯 공동체 바깥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배타적이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단절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교회가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자 한다면 지역사회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요나 이야기가 교훈하듯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이방세계(니느웨)에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새롭교회의 사례에서 보듯, 목회지역이 교인들만 아니라 교회 밖의 지역주민, 그것도 지역의 소외계층의 섬김과 치유에 힘쓸 때 교회의 영향력 확대나 교회성장도 가능해진다. 새롭교회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적도 소외계층의 어린이를 돌보고 섬기기 위함이었으며, ‘약대글방’을 ‘약대 신나는 가족도서관’으로 발전시킨 것도 교회 밖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함이었다.

3. 연대와 협력, 그리고 네트워킹

어떤 지역교회도 자신들만의 힘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에 성공할 수 없다. 마을만들기에 성공하려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해야만 한다. 오늘날 성공한 마을만들기 운동들은 대부분 지자체나 지역의 각종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지역주민이 힘을 모은 결과다. 지역교회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부일 뿐이며 그 영향력도 제한적이다. 비록 교단을 초월한 지역교회들 전체가 연합한다 해도 마을만들기에 쉽게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이유에서 마을만들기에 관심하는 지역교회는 반드시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야만 한다.

24) 장 바니에, 성찬성 역, 『공동체와 성장』 (서울:성바오로, 2005), 20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포용적인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면, 사도들은 복음전파를 위해서라면 헬레니즘의 장점을 과감히 수용하고 활용했다. 사도바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타문화에 대해 포용적이었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려고 노력했다.(고전 9:19-23) 에큐메니칼 신학은 교파와 교단을 넘어서 온 세상을 살기좋은 하나님의 집(오이코스)으로 만들어 가는 데 관심이 있다. 그 일을 위해 교파나 교단은 물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새롭교회의 협력과 연대, 그리고 탁월한 네트워킹 능력은 주목할 만하다. 새롭교회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우선, 운동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교회내의 조직인 ‘새롭지역선교위원회’(1990)를 만들었으며, 운동에 관심하는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 예를 들면 지차제(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푸른부천21 실천운동’이나 ‘부천시민연합’), 복지기관, 그리고 교회들과 연합체를 이루는데 힘썼다. 그 결과 새롭교회에서 시작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60여개의 연합체로 발전했고, 작은 도서관은 지역 내 15개의 마을도서관 연합체로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었다.

4. 마을만들기의 구체적 실천 전략

지역교회가 주도가 된 마을만들기 운동이 성공하려면 교회의 확고한 신학적, 목회적 토대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이종수는 마을만들기의 일곱 가지 전략으로 꿈 그리기, 보물찾기, 사람세우기, 공동일감 찾기, 관계 만들기, 민주적으로 생각나누기, 더불어 나누기를 제안하고 있다.²⁵⁾ 마을만들기에 관심하는

지역교회라면 마땅히 참고할 사항들이었다.

첫째, ‘꿈 그리기’란 마을만들기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의 목표나 비전을 가리킨다. 꿈 그리기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출발점으로서 살기 좋은 마을, 즉 마을공동체의 회복, 아름다운 동네, 편리한 시설 등을 소재로 해서 그려진다. 마을만들기의 목표는 마을의 필요와 실정에 적합하며, 추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물론, 지역교회가 주축이 된 마을만들기에는 기독교적 가치와 이상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보물찾기’란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수 자원을 발견하여 활용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다른 마을과 차별화될 수 있는 마을의 역사나 자랑거리, 기후나 자연경관, 특산물, 수공예품, 음식, 그리고 지역민의 생활이나 행사(축제) 등이 포함된다. 다무라 아키라는 마을의 보물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곧 기후나 자연경관과 같은 풍토적 가치, 역사적 유산이나 문화유산 같은 역사적 가치,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이나 축제와 같은 행위적 가치다.²⁶⁾ 우리나라의 잘 알려진 마을의 보물들로는 전북 고창의 복분자, 전남 보성의 녹차, 전북 완주의 한지, 전북 임실의 치즈, 전남 강진의 청자 예술, 강원도 영월의 도깨비놀이, 경남 밀양의 연극촌, 전남 곡성의 기차 마을 등 수없이 많다. 중요한 것은 그 자원(자산)이 무엇이든지 스토리를 지녀야 하고 스토리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사람세우기’란 마을만들기 운동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다. 리더십(leadership)의 문제는 지도자의 비전과 능력만 아니라 동참자의 스투어드십(stewardship)이나 팔로우십(followship) 그리고 주변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포괄한다.²⁷⁾ 마을주민의 자치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한데, 주민들의

25) 이종수,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 이종수 엮음, 『한국사회와 공동체』, 23-30.

26) 정재영·조성돈,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39-40.

27) 김경동, 『기독교 공동체 운동의 사회학』, 244.

자조정신과 공동체정신 교육, 그리고 리더십과 파트너십의 훈련이다.²⁸⁾

넷째, ‘공동 일감 찾기’란 지역주민의 폭넓은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의제나 일감을 찾는 일이다.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공공의 관점에서 마을의제나 일감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는 이해관계가 중심이 되면 마을만들기가 지역이기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관계만들기’란 주민 사이에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즉, 마을 구성원 사이의 관계형성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주민, 대표자, 주민자치회,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구성원 사이의 민주적이고 우호적인 태도가 요청된다.

여섯째, ‘민주적으로 생각나누기’란 마을만들기 운동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사이의 의사소통의 구조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일이다.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이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청년회, 부녀회, 반상회, 노인회, 작목반, 상인회, 어촌계, 번영회 등과의 대화와 협력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나누기’란 마을만들기 운동의 성과를 구성원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는 일을 가리킨다. 간혹 마을만들기 과정보다는 마을만들기에 성공한 이후 마을공동체가 어려워지는데 이는 성과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 때문이다. 때문에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성과의 공정 분배에 주의해야 한다.

28) 최봉익, “지역공동체 회복”, 이종수 편, 『한국사회와 공동체』, 109.

V. 결 론

마을공동체의 붕괴로 인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회 역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고립되면서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마을만들기 운동이 새로운 사회적 대안으로, 그리고 새로운 목회와 선교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마을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마을이 좋은 마을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겨난다. 심지어 마을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그 결과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 요소가 존재한다.

마을만들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요청되는 것은 지역사회와 교회 관계에 대한 목회철학, 공동체신학,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에큐메니칼 신학이다. 마을만들기의 구체적 실천 전략으로 일곱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바, 여기에는 살기좋은 마을에 대한 꿈을 그리고, 자원을 찾으며, 일꾼을 세우고, 공동의 일감을 찾으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험하며, 성과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교회는 고립과 소외로부터 벗어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현근. 『현대 지역공동체의 의의와 형성전략』. 이종수 편. 『한국사회와 공동체』. 서울: 다산출판사, 2008.
- 김경동. 『기독교 공동체 운동의 사회학』. 서울:한들출판사. 2010, 132-133.
- 김은희 · 김경민. 『그들이 허문 것은 담장 뿐이었을까: 대구 삼덕동 마을만들기』. 서울: 한울, 2010.
- 다무라 아키라, 장준호 역. 『마을만들기 실천』. 서울:형설출판사, 2008.
- 마하트마 간디, 김태언 역.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서울:녹색평론사, 2006.
- 박원순.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 서울:김동소, 2009.
- 박철수.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아파트단지 공화국』. 이종수 편. 『한국사회와 공동체』, 185-226.
- 성석환. 『지역공동체를 세우는 문화선교』. 서울:두란노아카데미, 2011.
- 야마모토 마사유키, 충남발전연구원 역.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마을만들기』. 서울:한울아카데미, 2006.
- 와타나베 순이치, 이건호 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대전:목원대학교출판부, 2004.
- 앤드 야스히로, 김찬호 역.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마을만들기』. 서울:황금가지, 1997.
- 윤태근. 『성미산 마을 사람들: 우리가 꿈꾸는 마을,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을』. 파주: 북노마드, 2011.
- 윤형근. 『새로운 지역문화 운동』. 정문길 외. 『삶의 정치: 통치에서 자치로』. 서울: 대화 출판사, 1998. 221-233.
- 이명규. 『일본에서의 마을만들기 운동과 대표사례』. 이종수 편. 『한국사회와 공동체』. 267-294.
- 이원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서울:동연, 2011.
- “이원돈의 ‘생명망 목회를 꿈꾼다’” <예장뉴스> www.pck-goodnews.com.
- 이종수 편. 『한국사회와 공동체』, 서울:다산출판사, 2008.
- 이휘영 · 한지윤. 『공동체를 찾아서』. 서울:생각을 담는집, 2011.
- 장 바니에, 성찬성 역. 『공동체와 성장』. 서울:성바오로, 2005.

조용훈. 「기독교 도시빈민공동체운동의 현황과 미래적 과제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 157집(2012/여름), 117-151.

정재영 · 조성돈. 『더불어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논문투고일: 2012. 10. 30

심사개시일: 2012. 11. 27

게재확정일: 2012. 12. 19

• 국 문 초 록 •

전통적 촌락공동체의 붕괴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교회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마을만들기 운동은 사회와 교회에 좋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지역교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있다. 경기도 부천의 새롭교회가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마을만들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요청되는 것은 지역사회와 교회 관계에 대한 목회 철학이다. 앞으로의 목회는 교회목회가 아니라 지역목회여야 하며, 목사는 지역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목사가 되어야 한다. 둘째, 마을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공동체신학이 필요하다. 개교회중심주의를 벗어나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마을만들기에 관심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가능케 하는 에큐메니칼 신학이다. 마을만들기에 성공하려면 지역교회가 지자체, 시민단체, 타교단 교회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하며, 효과적인 네트워킹을 실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실천 전략으로 일곱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바, 여기에는 살기좋은 마을에 대한 꿈을 그리고, 자원을 찾으며, 일꾼을 세우고, 공동의 일감을 찾으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험하며, 성과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살기좋은 마을이 되고, 지역교회는 고립과 소외로부터 벗어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지역교회, 네트워킹, 공동체신학, 새롭교회
